



안녕하세요! 김란영안젤라수녀입니다. 저는 국립나병원인 소록도라는 작은섬에서 5남매중 막내로 태어나 이틀만에 세례를 받고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금은 특별한 환경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낸후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나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던 시기에 어렸을 때 만났던 마리아누와 말가렛수녀님들 삶의 모습이 내 마음속 깊숙이 이상화 되어있음을 알게될 즈음 둘째 오빠의 소개로 1991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1998년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수도생활중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점점 하느님, 즉 추구해왔던 완전함이 곧 하느님이심을, 또 그 완전함속에서 깊은 평화를 누릴수 있음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여러 본당에서 사도직을 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모원 카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일하면서 미국 공동체수녀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문화안에서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1960년대에 화물선을 타고 낯설고 어려운 시기의 우리나라 시골에 오셔서 공동체를 시작하신 고마움, 또 미국 수녀님들의 기쁜 희생적인 노력으로 초창기 한국공동체를 지원하셨던 사실들을 알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들과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 준 많은 은인들을 기억하며, 지구촌의 민주, 인권,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0년 천주교광주대교구가 설립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의 노예적인 삶의 해방, 로힝야 및 티벳 난민들의 인권기록 사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피난민을위한 긴급 재난 지원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직을 통해 요즈음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제도로 인한 인권유린의 고통속에 있는 이들과 연대할수 있다는 놀라움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빛깔, 모습으로 어렸을때의 꿈, 그 이상에 근접해 있음을 인식할 때, 현실적으로 맞부딪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Hello, My name is Sr. Kim Ran-Young, Angella. I was born as the fifth among the five siblings on a small island named Sorok island, in which the national hospital for the lepers is located. I was baptized after two days of my birth and spent my childhood in this particular environment surrounded by beautiful nature, and later moved to Seoul. Living in Sorokdo, I thought about what everlasting and perfect love are and meaningful life. I realized that Sisters Marianne and Margaret (Austrian nuns who spent 40 years on Sorok Island

as nurses in a sanatorium for Hansen's Disease patients) whom I met when I was a child were idealized in my memory. My second older brother introduced me to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entered in 1991, and then had final vows in 1998. Having struggled with ideology and reality in religious life, I realized that the pursuit of my perfection was God, Himself. And I am living a life of faith as I experience that I can have perfect deep peace in Him, who is the Perfection Itself.



Since 1994 I have ministered in many parishes and especially had the opportunity to work at Caritas Christi from 2011 to 2014. I was inspired by US sisters living the same spirituality with a different culture. Once again, I was grateful that they came by a cargo ship in 1960 to a rural area in Korea and initiated our community amid a problematic economic situation right after the Korean war and knowing their courageous and voluntary sacrifice of mission for Korea.

Now I am working at the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of Gwangju Archdiocese. This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in 2010 to honor the victims and benefactor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Movement and promote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promotion of the globe. It supports domestic and glob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t this moment, we are advocating for the liberation or abolishment of India's caste system, writing a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the refugees from Rohingya persecution in Myanmar and Tibet, and emergency support of refugees from Myanmar from a military coup.

Through My ministry, I am in awe and am grateful to God that we can be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lost their dignity because of the pandemic, political and social system in some ways.

Sometimes, when I recognize that the dreams I had in my childhood almost reached ideal, that can be a power over the daily obstacles. Today, I once again move forward with faith to the call from God.

